

# NEAR News

하나되는 동북아시아, 하나되는 공동체 NEAR | One Northeast Asia Region, One Community NEAR

2017. 1-2

Vol. 72



일본 도야마현 아마하라시(雨晴) 해변 Amaharashi Beach

## 신년메시지

의장단체 중국 후난성장 쉬다저 | 전재원 NEAR사무총장

## 이번 호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회원단체 국제행사일정(1~2월)

## 경제코너

경상북도의 글로벌기업 투자 환경 | 경상북도의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빛을 만들어내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 | 글로벌 철강 기업, 포스코

## 기획취재

2016 NEAR 국제포럼 | 제4회 NEAR청소년 공모전 에세이부문 수상작 소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 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사무국의 활동상황, 회원단체 동정, 각종기고 및 공지사항 등을 담아 격월로 발간하여, 회원단체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NEAR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이며,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Vol. 72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시아 6개국(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러시아) 82개 광역지방정부(77개 정회원 및 5개 옵서버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이자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인문,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 조정, 에너지 기후변화, 여성 아동, 생명 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최대의 지방정부 협력기구인 AER(유럽 지방정부연합), R20(기후변화행동연합),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등 국제기구와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파트너십 체결, 공동사업추진 등 동북아를 넘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협력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지방정부는 연합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신년메시지

# 동북아지역 모든 시민들에 대해 축복과 인사를 보냅니다



쉬다저  
의장단체 중국 후난성장

새로운 해의 시작에 즈음하여,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게 된 지금 저는 후난성 인민정부와 7,300만 후난 주민들을 대표하여 동북아지역 모든 시민들에 대해 축복의 인사를 보냅니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설립된 이래 각 회원단체 간 경제, 문화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소재 국가 간 우호교류와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등 다방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경제분야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은 이미 세계 제3대 경제 주축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저는 NEAR가 지역의 교류협력의 창구이자 플랫폼으로서 회원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동북아지역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중요한 교량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신(新)중국의 설립자인 마오쩌둥 주석의 고향인 후난성은 중국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총 면적 21.18만 km<sup>2</sup>의 규모에 14개 시(市), 122개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7,300만 명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자랑하는 후난은 교통이 편리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과학기술 및 교육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산업 기반을 완성시켜 '어미지향(魚米之鄉)', '비철금속의 고장', '비금속 광산자원의 고장', '관광의 성지' 등의 찬사를 들어 왔습니다. 또한 기계공업, 철도교통, 전자정보, 신소재,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속품, 경질합금 및 심가공(深加工) 등의 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후난성은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 혁신을 선도하고 개혁개방 전략을 통해 종합 교통허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과학문화 혁신, 새로운 도·농 '4대 체계' 건설과 현대 제조업, 문화 창조, 우수한 농산품 개발, 관광 전역화, 과학기술 '5대 기지(基地)' 혁신, 경제 강성(强省), 과학교육 강성, 문화 강성, 생태 강성, 개방 강성 건설을 통해 아름답고 행복한 후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난성은 앞으로 의장단체로서 NEAR의 플랫폼을 통해 중국 국내외 양방향의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각 회원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저희는 각 회원단체 및 후난성 발전을 지지하는 세계 각계의 인사들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후난을 주목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뤄 내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동북아지역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 2017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전재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2017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회원단체 여러분께 인사 행동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방재, 교육문화, 광물자원개발조정 등 3개의 분과위원회, 청년리더스포럼, 청소년공모전, NEAR 국제포럼과 제11차 총회 등을 통하여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창설 이래 제11차 이르쿠츠크주 총회를 통해 77개 회원단체로 확대 되어 총 인구 6억 6천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동북아 최대의 지방정부 협력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연합의 발전과 회원단체의 공동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회비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준회원제를 신설하여 동북아시아 이외의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광역자치단체도 연합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가 동북아시아의 지역과도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지방정부협의회(AER),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지방정부기구(R20),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NEAR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며, 동시에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연합사무국은 NEAR가 창설 당시부터 견지해 왔던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고 회원단체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NEAR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각 분야 분과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 외에 민간전문가, 기업인 등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은 새로 선출된 NEAR 의장단체인 중국 후난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금년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교류협력활동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회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한 해에도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NEAR 활동

## 2016 NEAR 국제포럼 개최 (11.25~26)



2016 NEAR 국제포럼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안동 그랜드 호텔 에서 개최했다. 올해 포럼 주제는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 이 라는 주제로 회원단체 공무원, 전문가,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각 세션별 주제로는 관광과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 동북 아시아 상호 관광협력으로 각 국가별 전문가와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 을 가졌다.

올해는 국가별로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회원단체의 관광홍보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각 나라, 각 회원단체의 관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기획취재에 참고하기 바란다.

## NEAR 방재분과위원회 개최 예정 (3.6~3.9)

올해 3월 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효고현에서 방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된다. 방재분과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NEAR의 대표적인 분과 위원회로서 회원단체 방재관계관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의 재난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의 주관단체인 효고현은 1995년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 진에서 얻은 교훈과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재대책을 마련하 고 시설을 정비해왔다. 효고현은 방재분과위원회 행사 기간 중에 방재관련 국제기관의 강연과 의견교환회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에게 현지의 방재시설 시찰을 실시하여 효고현의 방재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 사무국 소식

## NEAR 사무국, 하반기 워크숍 실시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은 10. 27~28 양일간 강원도 양 구, 속초 및 동해안 일대에서 2016 NEAR 사무국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NEAR의 발전방안과 업무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 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남북한 군사분계선 부근 울지전망대 등을 견학하고 한반도 정세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 밖에 설악산, 낙산사 등을 탐방 하여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재원 사무총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NEAR가 동북아시아권 최고 의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창립9주년 기념식 참석 (11.3)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전재원 사무총장은 11월 3일 서울 프레 스센터에서 열린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창립 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이 후원 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 이어서 '동북아국제협력상'과 '2016 통일공감수기 공모전 시 상식'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NEAR는 지난 2015년,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서 역 내 지방정부 간 활발한 교류와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공동발전 을 이끌고 역내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동북 아국제협력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글로벌도시포럼 참석 (11.16)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전제원 사무총장은 11월 16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글로벌 도시포럼에 참석하였다. '국제협력을 통한 지진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인 재난대책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산지역의 전문가 및 일본의 고베, 후쿠시마, 구마모토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전략, 경북 포항의 역할 및 동북아 정세변화 등에 대해 강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 NEAR사무국 방문

NEAR사무국은 12월 7일, 몽골 울란바타르 시의회 나차그 바이르몽흐 시의원을 비롯한 방문단일행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NEAR 소개와 상호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권남원 기획홍보부장은 “몽골 회원단체가 NEA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 표시를 하고, 앞으로도 회원단체 간의 정보 공유와 몽골 지방의회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환동해 해양전문가 과정 특강 실시 (11.19)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전제원 사무총장은 11. 19. 포항 (사)도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환동해 해양전문가 양성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환동해 도시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 전제원 사무총장은 NEAR와 외교관 근무 경험을 살려 환동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관련 국가들의



## 회원자치단체 동정

### 중국- 헤이룽장성

#### 제33회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축제 개최

제33회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축제 개막식 및 제2회 중국(하얼빈)국제빙설관광 고위급회의가 2017년 1월 5일 개최된다. 축제 기간, 제18회 하얼빈 빙설대세계와 제28회 태양도 국제 눈조각 예술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시에, 송화강 위에는 빙설디즈니랜드가 설치되고 스탈린공원에는 대형얼음조각이 전시되며, 자오린공원에서는 빙등축제가 성대한 규모로 열린다. 또한 헤이룽장성 각지에서 관광축제, 빙설관광, 빙상 및 설원 스포츠, 빙설민속, 문화 사진 촬영회 등 116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를 함께 열어 많은 여행객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2월 말까지 계속되어 행사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겨울축제인 하얼빈 빙설축제의 목적은 빙설문화를 부각시켜 빙설 관련 경제·무역을 선도하고 빙설관광을 촉진하는 데 있다.



## 일본- 니가타현

### '제9차 러일 에너지·환경 다이얼로그 in 니가타' 개최

11월 2일 일본과 러시아의 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9차 러일 에너지·환경 다이얼로그 in 니가타'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전문가들이 일본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올해로 9회를 맞이했다.

기조연설로는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보이는 러일 관계에 대한 전망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세션A에서는 '에너지 자원'을 주제로 한 에너지의 세계적인 수급동향, 극동 에너지 인프라 상황과 일본기업의 에너지 조달상황 등이 소개되었다. 세션B에서는 '에너지 절약, 환경, 전력'을 주제로 11월에 발효된 파리협정의 중요성과 사하 공화국의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현황, 일본기업이 실시하는 풍력발전의 실증사업 등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니가타현은 니가타현이 러일 에너지협력 관련 정보의 핵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것이다.



## 한국- 충청북도

### 세종대왕 행궁 조성 사업 추진

세종대왕이 123일간 요양하면서 한글창제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행궁이 2년 뒤 모습을 드러낸다. 청주시는 세종대왕이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행궁을 짓고 두 번에 걸쳐 123일간 초정약수를 마시고 몸을 씻는 등 치료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종대왕 초정행궁 조성에 들어갔다.

초정행궁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지난 2014년 1월 발표한 연구조사에 의해 밝혀졌다.

행궁은 1448년 방화로 불에 타 없어지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동국여지승람' 등의 자료에 초정원 옆에 있다고 기록해 초정약수터 주변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행궁을 재현하기 위해 시는 지난달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초정리 초정문화공원 인근에 행궁을 재현해 현대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초정문화공원과 함께 3만6천㎡ 규모로 조성될 행궁은 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45억 원 등 120억 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초정 약수 축제와 더불어 세종대왕 행궁의 문화적 콘텐츠가 연계돼 청주의 대표적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궁 재현 시 역사적 가치가 계승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증 및 자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경상남도

### 오는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경상남도는 10일 서부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5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충전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서부부지사와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시·군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도와 시·군에서는 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전에서는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관리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오는 2018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해, 충전시설이 부족한 시·군의 다중집합장소 또는 관광지 등에 50여 개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운행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내년에는 운행거리가 300km를 넘는 전기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2~3년 이내에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협약이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는 준비단계가 될 것이며, 더불어 친환경차량의 보급으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4,000만 원 정도로, 차량 구입 시에는 1,700여만 원의 보조금과 400만 원 상당의 개인충전기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400만 원 정도의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 January, February

2017. 1. 1. ~ 2. 28

자치단체명	행사명	기간	장소	연락처
한국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1월 7일 ~ 29일	강원 화천군	화천군 관광정책과, (재)나라 Tel : 1688-3005
일본 효고현	효고 안전의 날 집회 1.17 기념 걷기 대회 2016, 1.17 집회, 교류의 장 · 무대, 방재훈련	1월 17일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부흥지원과 Tel : +81-78-362-9984 Fax : +81-78-362-4459
일본 효고현	국제방재 · 인도적 지원 포럼 2017 International Disaster Reduction Forum(DRA Forum 2017)	1월 20일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방재기획과 Tel : +81-78-362-9870 Fax : +81-78-362-9914
일본 효고현	IRP국제부흥포럼 2017 International Recovery Forum 2017	1월 24일	효고현 고베시	효고현 방재기획과 Tel : +81-78-362-9870 Fax : +81-78-362-9914
일본 교토부	「KYOTO지구환경의 전당」 시상식 The Earth Hall of Fame Kyoto, Award Ceremony	2월 11일	교토시	「KYOTO지구환경전당」 운영협의회사무국 Tel : +81-75-414-4830
일본 교토부	교토환경문화학술포럼 국제심포지움 The Earth Forum KYOTO, International Symposium	2월 11일	교토시	교토환경문화학술포럼사무국 Tel : +81-75-414-4830
일본 니가타현	동북아시아경제발전국제회의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Economic Development	2월 14일 ~ 15일	니가타시	환동해경제연구소(ERINA) Tel : +81-25-290-5545 Fax : +81-25-249-7550



2017년 신년호부터 회원단체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별 회원단체를 순회하면서 산업, 투자 환경 등을 집중 소개하는 경제코너를 신설 운영합니다.

## 경상북도의 글로벌기업 투자 환경

경상북도는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국난극복의 보루였으며,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또한, 면적은 19,029km<sup>2</sup> (전 국토의 19.1%)로 전국 최대로서 서울의 31배에 달하며, 행정구역은 23개 시·군(10시, 13군) 332 읍·면·동이다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경상북도의 주요 경제 현황으로 글로벌기업 투자환경과 주요시책인 새마을운동,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연구기술기관인 포항가속기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 포스코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산업단지 현황 (km<sup>2</sup>)

구분	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비고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계	156	155,180	9	83,724	78	59,766	69	11,690	

### ● 국가산단 · 경제자유구역



※ 산업단지 현황  
- 156개소(국가9, 일반 78, 농공 69), 154km<sup>2</sup>(4,650만평)  
- 경남에 이어 전국 2위

# 경상북도의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사업은 체험을 통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가난 극복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구촌 빈곤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경상북도는 현지 수요와 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주도의 새마을 방식을 추진하고자 대륙별 거점센터(새마을 연구소)를 설립하여, 초기에는 현지 주민, 소규모 지도자 연수 등을 우선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도자와 교관 요원 교육을 아우르며 포괄적인 새마을운동의 중심센터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리더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 새마을지도자 연수,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파견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86개국 4,297명이 저개발 국가 새마을 지도자 연수를 받았고, 11개국 30개 마을이 새마을 시범마을로 조성되었다. 또한 대학생이 6개국 610명이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하였다.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새마을 ODA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자체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 POSCO



## 글로벌 철강 기업, 포스코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 3,800만 톤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기업으로 열연, 냉연, 후판, 선재, 전기강판, 특수강, 표면처리강판 등의 탄소강과 스테인리스를 생산하여 포스코는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잉 생산 및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철강수출 급증, 엔저 영향, 국내 수요산업 정체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포스코는 'POSCO the Great'의 재건을 선언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광양제철소에 세계 최대 규모의 후판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포항 제철소의 4고로를 개수하여 단일고로 일일 출선량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6월 9일 개최한 제30차 글로벌 철강전략회의(SSS: Steel Success Strategies)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포스코는 6년간 8회 연속 1위로 선정되었다. 또한 기후전략, 노동·인권, 인적자원개발 등의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11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면서 한국 내 기업 중 가장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고 있다.

# 2016 NEAR 국제포럼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5개국 35개단체 85명을 포함한 33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NEAR 국제포럼'이 개최하였다. 올해는 NEAR 사무국과 (사)한국관광학회의 공동주관으로 '관광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동북아 지방정부의 관광정책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회원단체간에 관광분야 협력 모색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 창출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오프닝 세션

2016 NEAR국제포럼에서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여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개막식에서 전제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전제원 사무총장의 개회사,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 환영사, 권영세 안동시장 축사,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기조연설, Eugene Y Roh Central Michigan Univ 교수가 특별연설을 했다.

● 세션별 주제 발표 및 토론

올해 포럼에서는 관광과 지역발전, 지속 가능한 관광과 국제협력, 동북아시아 상호 관광협력 등 3개의 세션주제로 진행됐다. 각 세션마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동북아 관광분야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청해 각국 지방정부의 관광정책과 모범사례를 소개했고 패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문으로 포럼 분위기가 고조됐다.

제1세션에서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 하타다 노부유키교수는 일본지역의 관광 마치즈쿠리를 소개하였고, 러시아 사할린 국립대학교 엘비라 임 교수는 사할린주의 현재 관광 개발 정책을 소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몽골 국립대학교 몽흐나상 사랑토야 교수가 몽골이 가지고 있는 교유의 자연으로 생태관광, 관광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 단국대학교 김 현 교수는 생태관광



의 정의와 정책의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중국 허난대학교 천 난 교수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통한 중국의 관광정책을 소개하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박사는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광동향을 통해 동북아시아국가 간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포럼 기간 중에 각 국가별 관광홍보와 전시를 위한 부스를 마련해 동북아 회원단체의 문화를 알리고 관광 상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 회원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졌고 참가자들에게는 동북아 지방정부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다.

● **현장시찰**

참석자들은 이튿날 경북도청을 방문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도 찾아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 제4회 청소년공모전 에세이부문 수상작 소개

NEAR 청소년 공모전은 회원지방자치단체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기존 에세이부문에 더해 그림·포스터부문을 신설했다. 그림·포스터부문의 주제는 '문화재보호'와 '환경문제' 선택주제로 5개국 46편이 출품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에세이부문 최우수, 우수 수상작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최우수]

### 동북아를 알자, 미래를 꿈꿔 보자 - 한국 경상북도 경산여자중학교 배가현

세계의 13분의 1에 불과한 땅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곳, 다채로운 사람들의 다채로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전 세계 총 생산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경제 규모, 드넓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모두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 이곳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 동북아시아이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G1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다음 '세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견한다. 이는 우리가 동북아시아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동북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동북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동북아시아 각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동북아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책, 뉴스,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꾸준히 접하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학회, 동북아 역사재단, 동북아 평화 연대 그리고 이 대회를 개최한 NEAR와 같은 여러 단체의 누리집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동북아 대장정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작년 이맘때이다. 나는 우리 고장 경산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조요시를 방문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정은 일본 조요중학교 학생들과 만나 같이 활동하며 직접 소통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서로가 낯설어서 분위기가 어색했다. 이때 서로 친해지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은 뜻밖에도 한류 열풍이었다. 일본 친구들이 한국의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야기의 공통분모가 생겼고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일본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갔더라면,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도 되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해 아는 것, 특히 서로의 문화를 아는 것은 서로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을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알아두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국의 속담에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다. 또한 동양의 철학자 공자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하다.’고 하였다. 우리는 동북아에 대해 알게 된 여러 사실들을 가지고 각국의 역사, 전통, 문화를 이해하며, 이를 포용하는 태도까지 길러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꿈꿔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 대해 진정으로 ‘알아가는’ 길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를 들 수 있다.

동북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의 여러 역사적 문제들이 현재 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국가적 분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역사적 요인들로 인해 생긴 독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오)분쟁도 있다. 이는 서로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보라. 서로를 이해하고 자국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 인정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두 나라가 성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는 서로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다. 영토, 역사, 문화유산, 군사 훈련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도 자주 발생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동북아’라는 한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멀리하고 싶은 불편한 이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서로를 잘 안다면, 특히 동북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동북아에 대해 잘 ‘알아’간다면, 동북아에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중국의 친구, 한국의 친구, 일본의 친구 그리고 휴전선 너머의 친구들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서로 도우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이를 위해 우리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바로 ‘동북아를 아는 것이다.’

[우수]

## 러시아 문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

### - 러시아 하바롭스크변경주 해군중학교 파슈타 안나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 문화에 대해 우선 나의 의견을 짧게 전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러시아 인들을 발라라이카, 갈색 수염과 모자, 잘 듣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문화는 긴 역사가 있다. 유구한 역사로 인해 관습, 전통 및 축제가 다양하다. 러시아는 휴일이 많으며 특히 겨울기간에 많다: 새해, 구 새해, 성탄, 이피파니 (예수 공현 축일), Christmas-tide, and Shrovetide 등이 있다. 대부분의 축제는 슬라브 문화에 기원을 둔다. 요즘에 많은 휴일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인기 있다.

러시아는 매우 잔혹하면서도 대단한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기에 보로디노 전투와 같이 기억에 남을 만한 날들이 많다. 하지만 대조국전쟁이 가장 웅대하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날은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큰 휴일이다. 우리의 문화는 전통음악과 춤, 전래동화, 음악, 악기에 유구한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고 특별한 종류의 스포츠가 있다. 사람들은 슈로브타이드(참회의 화요일) 같은 휴일 동안 스포츠를 즐긴다. 휴일 선물로 험한 산을 오른다.

또한 러시아에는 Gzhel, Khokhloma, Orenburg shawls, Dymkovo toy, Ural malachite, Tula samovar와 같은 국가적으로 창의적인 시설이 많다. 창의적인 상품은 유명인사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러시아 음식과 환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러시아 가정을 방문하면, 냉장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는다. “광범위한 러시아 정신”이라는 문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개인적으로 이는 러시아의 풍부한 감정, 친절함, 공감능력, 진실함, 예의바름, 자연스러움 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러시아 문화와 예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작가로는 알렉산더 푸쉬킨, 레오폴스토이, 미카일 불가코프, 예술가로는 Viktor Vasnetsov, Ivan Aivazovsky, Isaac Levitan, Karl Bryullov, Kazimir Malevich, 과학자로는 Mendeleev, Lomonosov, Popov, Yablochkov, cosmonauts Gagarin and Tereshkova, 발레리나로는 Maria Plisetskaya, Anna Pavlova, Anastasia Volochkova and other great people of Russia가 유명하다.

근대 러시아 문화는 위기로부터 점차 부상하고 있다. TV에는 “Svati”, “Friends” 와 같은 흥미롭고 단순하며 진

정성 있는 만화 영화와 영화가 있으며, 마리나 고렙을 기린 만화로 “Barboskiny”, “Smeshariki”, “Masha and the Bear”가 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와 어른은 “Soyuzmultfilm”과 같은 만화영화와 Spokoiny nochy malishi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한다. 영화관에서는 “Tri bogatirya, Ivan-Tsarevich and the Grey Wolf”, “Alyosha Popovich and Tugarin snake” 같은 만화영화가 상영된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여가시간을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낸다. 독서, 극장이나 영화관 방문 또는 전시회, 박물관 방문을 하고 이를 친구나 지인에게 소개하기도 한다. 문화는 모든 국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 세계를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로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다. 문화는 기술, 아트, 건축, 정신세계, 종교, 영화, 연극, 음악, 인간의 행동, 취미 등이 아우러진 복잡한 존재이다.

21세기 세계화는 국가 발전의 일부이다. 근대 러시아의 문화는 다른 나라처럼 세계화에 동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의 진보의 결과로 인해 개개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21세기 러시아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다음 세기 러시아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하는가?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하위문화에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으며 그들이나 주위 사람에게 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문화적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는 서구의 스킨헤드, 이모, 폭주족, 히피, 고프닉(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집단) 등의 하위 문화들이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회에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위문화는 주요문화와 다르기도 하다.

다음으로 타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은 종종 그들 본연의 전통과 가치관을 잊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이는 관심사에 따라 문화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원래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해야 한다. 아쉽게도, 러시아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역사와 문

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대한 인식없는 후대를 위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없다.

한편으로 세계화 과정의 여러 장점도 있다. 문화적으로 수평적 범위를 높일 수 있고 문화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21세기에는 새로운 취미가 러시아에서 나타났다. 조각, 스크랩북, 다단계케이크 만들기, 다양한 인도요가 등이 있으며 서방 국가로부터 넘어왔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꽃꽂이와 경관 디자인이 활발히 발전되고 있다. 젊은 러시아인들이 플래시 몹에 참여하거나 락페스티벌이나 강아지쇼, 오래된 자동차 전시 등의 쇼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며 발렌타인데이와 할로윈 같은 서양 휴일을 따르기도 한다.

오늘날 많은 러시아사람들은 이탈리아 피자과 파스타, 일본의 스시, 이국적인 중국 음식 등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다. 한편 다른 나라 사람들은 blinies, borsch, okroshka, pelmeny, solyanka, kvas and vodka 등의 러시아 음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이해에 이르게 하고 서로의 관대한 태도를 제공하고, 전 세계가 평화 속에 살 수 있도록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계화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하다. 해외에 간다면 방문국의 문화와 관습을 잘 알아야만 문화 충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감사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 다음 세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화적 가치와 세계화의 과정에 신중하게 될 것이다. 22세기에 러시아는 러시아(정신)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못하게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영어를 좋아하기에 이 글을 영어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영어가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 아니라 세계화 과정의 일부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오랫동안 영어가 세계 공용 언어로 간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수]

## 나뭇잎에 대한 생각

— 몽골 수흐바타르아이막 바롱오르트군 제3번학교  
바트수흐 오토공치멕

하늘이 실컷 울어 대지를 축축하게 적신 뒤 해가 나와 하늘이 맑아지자 반달모양(아몬드모양) 눈을 가진 소녀인 내가 겔(Ger)의 천장 환기창을 열고 벽의 하단 천을 걷어 올려 글을 쓰기 시작한다.

빛과 그들은 모든 것의 양면이다. 그러나 빛이 있는 쪽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 몽골은 세계의 중앙에 자라고 자라 잎이 풍성한 하나의 아름답고 젊은 나무가 되었다.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더 높이 자라지만 그것을 따라 그들도 자란다.

나무가 쭈다는 이유는 제국(몽골)이 건설되어 몽골이라는 나무 씨앗이 뿌려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라났으나 시들어가고, 뿌리가 손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잎을 피웠지만 세월의 거센 바람에 해마다 사회주의체제와 인연이 되자 뿌리가 썩어 돌아났다. 그러다 90년대를 맞이하자 '민주주의의 씨앗'이 거름으로 탈바꿈하여 나무에 영양분을 주고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높이 뻗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 젊은 나무의 앞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뒤에는 러시아연방이란 거대하고 웅장한 나무들이 자리잡고 있고 그 주변에는 대한민국, 일본국, 조선인민공화국이란 열매를 피운 나무들이 자리잡고 있다. 1996년 9월부터 이 나무들이 뿌리로 연결되어 잎사귀와 잎이 모여 서로 의존하여 자라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하나되는 지역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라는 대가족, 웅장한 숲을 만들어 세계의 중심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워 손에 손을 들었지만 높이 자란 나무들의 그늘(어두운 면)을 어떻게 할까.

그늘이란 세월을 따라 변화되는 퇴보(regress) 즉,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다. 최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 기후변화, 윤리 의식의 저하, 차별 등의 문제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의 그늘진 면이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기 위해 이들 나라가 모였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중요할까. 같은 하늘 아래 한 지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이들 나라가 뜻을 모아 그늘진 면을 밝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나무꼭대기에서 몇 명이 높이 등불을 들어 어둠을 비출 수 있듯이, 몇 명이 좋은 일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나무의 어딘가에 그들이 남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따라서 몽골이란 나무의 22개 줄기에서 갈라져 자란 3,093,143개의 잎인 우리 몽골인 모두가 자신들의 정신을 맑게 하는 불을 켜, 나쁜 것을 초기에 물리쳐 빛이 필요한 이에게 자신을 빛을 나누어 주어야 그들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빛이란 인간성, 본성, 동정심, 정의(정직함),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나눌 줄 아는 마음, 평등, 사회의 모든 좋은 면 및 진보(progress)다. 비록 우리는 각 나라가 경계선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위치를 자리잡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경계선과 같은 한계와 벽을 넘어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은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모든 생명을 우리 인간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려운 이를 돕고, 흐르는 강물을 보호하고, 어머니 같은 자연을 장수시키기 위한 노력 등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보호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모범이 되려 해도 그 영향력은 적은 듯하다. 그 이유는 몽골의 동단에 자란 하나의 나뭇잎이 같은 모양의 같은 목표를 가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라는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창설된 동북아시아를 위한 국제기구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이 기구의 이름조차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또는 동생과 차세대대를 위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끝에 비록 나는 어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 주위를 밝게 하고, 우리를 위해 손에 손을 든 사람들과 하나되어 더 많은 빛을 만들고 영역을 넓혀 갈 것은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나는 성장하고 열매를 필 것이다. 그리고 동양의 동북아시아도 세상의 다리, 경제, 발전의 창고, 도움의 손, 행복의 문이 되어 밝게 빛날 것이다.

몽골국의 동단에서 자란 나뭇잎인 나는 초원의 해질 무렵에 글을 마무리한다.

#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37668)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82-54-223-2324 F. +82-54-223-2309 E-mail [near@neargov.org](mailto:near@neargov.org) Website [www.neargov.org](http://www.neargov.org)